

# 2024 고난주간 묵상

고난주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성회수요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 수난절기의 절정기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의 기회로 보냅니다.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특별히 은혜받는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 [고난 주간의 의미]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력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키는 절기마다 신앙의 깊은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더 큰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성탄절과 승리의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소망은 점점 더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의 의미가 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를 놓치고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올해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부활절 전(前) 40일간(주일은 제외)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금식, 세례받기 위한 훈련, 기도, 겸손한 생활을 통하여 자기 부정과 참회를 했습니다.



제 1일

3월 24일 종려주일

## 예루살렘 입성

마가복음 11:1~10 / 찬송 513장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듯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대속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서 기존의 정치세력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칭송한 것은 목적을 잃은 환호성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칭송이 무엇 때문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1**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묵상2**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 매 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 제 2일

3월 25일 월요일

## 성전을 청결케 하심

마가복음 11:12~25 / 찬송 332장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당시 성전 안에서는 명절 때 희생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였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유대 화폐를 교환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인,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고 성전은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내쫓고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막11:17)

또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한 나무였으나 실제로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겉모습만 화려한 알맹이 없는 종교인을 비유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신앙인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따를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1**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2** 열매 맺는 신앙인과 겉만 무성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악과 욕망으로 겉모습만 무성한 신앙인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 제 3일

3월 26일 화요일

## 과부의 두 렵돈 교훈

마가복음 12:1~44 / 찬송 185장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로 논쟁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천국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렵돈을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칭찬하셨고, 제일 큰 계명을 묻는 청년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이란 두 진영이 말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경험과 상식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든 습관처럼 늘 해오는 일이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는지 먼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의 뜻이 같은지, 다르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묵상1** 신앙생활에서 내 상식으로 잘못 판단했던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2**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 나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고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제4일

3월 27일 수요일

## 한 여인의 헌신

마가복음 14:3~9 / 찬송 346장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300배나 되는 무척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비난과 조롱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 드린 것은 향유를 넘어 자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고 이 귀한 고백은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정말 아끼는 것을 드러 본 적 있습니까? 주님만 알아봐 주신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는 것이나 자투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1** 내가 주님께 드린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묵상2**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기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최후의 만찬

마가복음 14:12~31 / 찬송 141장

-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희생해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음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사랑이 눈과 마음으로 전달되어 희생과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사라지는 행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1**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2**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기도**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품게 하소서.

## 제 6일

3월29일 금요일

##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다

마가복음 15:16~41 / 찬송 147장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
2.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27)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5. 내가 목마르다(요19:28)
6. 다 이루었다(요19:30)
7.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외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외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아닌 우리를 위해 외치셨습니다. 가상칠언은 남을 위한 외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리해 주는 소중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며 살고 있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말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상1** 다른 사람을 위해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2**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기도** 나의 평생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무덤 속의 예수님

마가복음 15:42~47 / 찬송 135장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70명의 의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할 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고 자신의 무덤에 주님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지만 관원들의 박해와 친지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통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틀린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주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옳은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소외되고 배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되신 주님을 붙잡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1**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이나 손해 본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2** 내 삶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결정했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